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 자원봉사활동 ‘훈훈’

광주자원봉사센터, 가족대기소 생필품 지원
구조대원 피로회복·심리적 안정 돕기도 펼쳐

광주시자원봉사센터는 광주 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철제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 밤낮없이 수색·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소방대원과 관계 공직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활동을 진행했다.

지난 11일 오후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철제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소방당국은 조망차 등 가용 장비를 총동원해 수색 작업을 철야로 전환하고, 실종 작업자를 찾기 위한 구조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자원봉사센터는 사고 직후 현장에 상주하며 구조대원들의 피로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즉각 추진했다.

사고 발생 첫날인 11일에는 가족대기소에 대한 긴급 생필품 및 간식지원과 함께 슬럼프 협력에 통해 딱곡 200인분을 현장 구조인력에게 제공했다. 또 맘스터치 광주본부의 후원을 받아 소방 수색 인력 및 고용노동부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일 햄버거 200개를 전달해 구조 활동에 힘쓰는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고 발생 이틀째에는 소방관 및 공직자들을 위한 간식부스를 운영하고, 장시간 현장 근무로 지친 인력들이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도록 마음쉼터(에어벤트)를 설치해 휴식 공간을 제공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들이 구조 현장 인



광주시자원봉사센터는 광주 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철제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 밤낮없이 수색·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소방대원과 관계 공직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활동을 진행했다.

력 지원에 적극 참여하며 필요한 물품 전달 및 현장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류미수 광주자원봉사센터장은 “수색·구조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소방대원과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업에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물품에 대해 검토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



광주시자원봉사센터는 광주 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철제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 밤낮없이 수색·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소방대원과 관계 공직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활동을 진행했다.

“태양광 발전, 주민참여 확대·이익공유 모델 확산”

재생에너지 공영화 토론회
녹색에너지연구원 개최

전남도가 주최하고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주관한 ‘2025 재생에너지 공영화 대토론회’가 최근 장흥 통합의학컨벤션센터 인화관에서 개최됐다.

‘전남도 재생에너지 공공성 활성화’를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는 주민참여형 공공에너지 시스템의 방향성과 실행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지자체 관계자, 에너지 관련 기관, 전문가, 활동가 등 100여명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정책적 대안을 공유했다.

발표 세션에서는 전진기(㈜터플랜비 대표)가 ‘에너지협동조합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영광 월평협동조합의 영농형태양광발전소 운영 사례 등 주민참여 협동조합 우수 사례를,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



전남도가 주최하고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주관한 ‘2025 재생에너지 공영화 대토론회’가 최근 장흥 통합의학컨벤션센터 인화관에서 개최됐다.

연구소 위원의 ‘공공재생에너지 운동과 공영주차장 태양광 조례’를 주제로 주민 참여 지원 조례 제정 추진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또 권유식 보성군 농민회장은 ‘농촌 활력과 공영화 모델’을 주제로 농촌형 태양

광의 규제완화와 청년 농민들의 재생에너지 사업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종합토론은 김형진 (사) 신재생에너지 나눔지기 교민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황규철 녹색에너지연구원장은 “최근

태양광 발전 분야의 핵심 이슈는 주민참여 확대와 이익공유 모델 확산이다”며 “연구원은 재생에너지 공영화 사업을 확대해 더 많은 주민이 에너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렬 기자 hoibul@gwangnam.co.kr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보행안전 캠페인
유관기관 합동… 종합버스터미널서 안전수칙 홍보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가 14일 보행자의 날을 맞아 광주유스퀘어(종합버스터미널)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보행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현재 보행자 교통사고는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은 2023년 36.1%, 2024년 35.1%, 2025년 34.1%로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공단은 보행자 보호의식을 강화하고 안전수칙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진행했다.

특히 단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 교통안전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교통약자 사고 다발지점인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캠페인을 진행해 실효성을 높였다. 이날 캠페인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광주교통문화연구소원 △사람실은교통봉사대 광주지대가 참여했다. 이들은 무단횡단·스몸비 금지 등 보행안전 수칙을 집중 홍보하고, 반사 기능이 포함된 ‘TS-안전키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가 14일 보행자의 날을 맞아 광주유스퀘어(종합버스터미널)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보행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링’과 안전 리플릿을 배포했다.

이를 통해 시민 대상으로 자발적인 안전수칙 준수와 보행사고 예방 문화 확산을 유도했다. 캠페인 배포 물품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시민참여혁신단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

광주남부경찰, 청소년 밀집지역 야간 순찰 강화
자경위 협업… 12월 비행 예방·주민 불안 해소 총력

광주남부경찰은 14일 청소년 강력범죄 예방과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으로 청소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비행 예방 야간순찰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남부경찰은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해 12월 한 달간 매주 야간 순찰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남부경찰은 14일 청소년 강력범죄 예방과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으로 청소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비행 예방 야간순찰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청소년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를 현장에서 직접 관리하며 비행 징후를 조기에 차단하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안 요소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또 경찰은 순찰 강화와 함께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사전예방교육, 온라인(SNS) 정보수집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청소년 대상 맞춤형 예방활동도 병행해 청소년 범죄 차단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안전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일선 경찰서가 함께 추진하는 예방 중심 치안이 지역 안전정책의 핵심”이라며 “청소년 비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 안전을 높이기 위해 행정·현장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득 남부경찰서장은 “이번 야간 순찰활동을 통해 청소년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사회 불안 해소에 기여하겠다”며 “주민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광주·전남사진기자회 회장에 김진수 광주일보 차장

제21대 한국사진기자협회 광주·전남사진기자회장에 김진수(48·사진) 광주일보 사진부 차장이 선임됐다.

김 선임 회장은 지난 2022년 제19대, 지난해 제20대 회장을 역임했다. 임기는 2년으로 이달부터 2027년 12월까지다.

김 회장은 2004년 광남일보 사진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해 2010년 광주일보로 자리를 옮겼다.

김 회장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사진기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 역사의 기록으로서 보도사진의 가치도 바로

세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광주·전남 사진기자회는 광주일보, 광남일보, 광주매일신문, 남도일보, 무등일보, 전남매일, 전남일보, 조선투일, 동아일보, 연합뉴스, 뉴시스 등 11개 언론사 소속 사진기자 20여명이 활동 중이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게시판

알림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확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학대 신고=노인학대를 당하고 계신 분, 목격하거나 알게된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문의 1577-1389.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상담=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가족을 대상 무료 상담 진행.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 함께한결을센터. 문의 062-374-2818.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월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 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지원, 긴급원호·숙식제공·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범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모집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스마트폰 활용가 능자 모집. 5~6명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블로그창업동호회, 문의 062-511-0030.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반)=시·군·구 자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ონსე (음력 10월 26일)

48년생 밖에서 안으로 좁혀 들어오는 날
60년생 어깨쓰고 절약하면 재산이 모인다
72년생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법
84년생 동료 내면의 본질을 파악해야 해결
96년생 핵심을 파악하지 않으면 쓸모 없다

51년생 가벼운 징후가 비화 되지 않도록 하자
63년생 손재가 있으니 멀리 나가지 마라
75년생 시기상조임을 알아야 할 것
87년생 배우자로 고민할 수
99년생 무리하게 과로를 하지 마라

54년생 다툼 일어날수 있으니 주의
66년생 문서 욕심은 절대로 금물
78년생 시작한 일은 귀하게 여리
90년생 현상 유지에 신경 쓰시기 바란다

57년생 불 일이 있으니 절대로 잊지 마라
69년생 동료 믿을 갖고 노력하는 시기
81년생 과민 반응하여 시비 구설수
93년생 너무 뒷일을 걱정하지 말 것

49년생 토지 거래 정성을 다해야 한다
61년생 반드시 좋은 문서 생길 것
73년생 감기에 시달릴 수 있다
85년생 자존심에 거래처를 놓치지 마라
97년생 이성 만나는 것 서두르지 말자

52년생 고생 끝에 낙이 온다
64년생 받아들이는 것이 나을 것
76년생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
88년생 새로운 것이지만 검증되지 않았다

55년생 곤란한 일정에 처할 수도 있다
67년생 쓸데없는 수고에 그치고 말 것
79년생 모험심이 있는 일도 성공
91년생 취업문이 열리지 않았다

58년생 데이트 서로 통하는 기분이니 즐겨운 날
70년생 꾸준히 전진하면 성공의 지름길
82년생 문서 들어와 열조되니 손조롭다
94년생 부족함이 만화하게 되는 쾌거가 있는 날

50년생 구설이 생길 수 있으니 입조심하라
62년생 희망이 생기고 활기를 찾게 된다
74년생 불투명하고 답답하니 위태롭다
86년생 손재수 있으니 금전거래 하지마라
98년생 사랑하는 이성 있으나 부모님이 반대

53년생 의견이 맞지 않으니 갈등이 있었다
65년생 전진위해 일부 후퇴 하는 날
77년생 잘못된 연행으로 부부 관계 서먹
89년생 늦추고 겸손하게 행동해야 한다

56년생 물에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
68년생 금전 융통이 원활해지겠다
80년생 거래 계획에 아랫사람의 도움 큰 날
92년생 자기 발전을 위하여 노력

59년생 참보로 말하게 되면 망신수 주의
71년생 실제와 일치되지 않으니 실망감 큰 날
83년생 동료와 협조 절되니 손조로운 날
95년생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날